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성령충만과 찬양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성령이여! 십자가로 역사하소서 오늘,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단순히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



성령충만의 증거, 찬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계 5:13)

성령충만의 증거 중 하나는 찬양입니다(행 2:47).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행 16:25). 이와 같은 성령충만의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각 교회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는 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마 19:14)는 말씀대로 주일찬양예배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으로 풍성합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찬양대와 특별한 양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찬양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신설된 '충현음악아카데미' (본지 8면 참조)는 이와 같은 찬양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이다"(시 150:3-4).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일과 관계없을 때가 많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참 자유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때 성령의 일하심이 보인다.

다. 주기도(마 6:9-13)를 진실로 고백하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6).

5.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신다(롬 5:5).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요 16:14).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6. 초대하신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니라"(계 22:17).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일을 하고 싶은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자. 이는 모든 외식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라는 의미이다. 성령의 일을 인간의 일로 범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일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 아멘.

복음
The Gospel

성령의 일

(갈라디아서 5:16~26)

1. 인도하신다

2. 명명하신다

3. 힘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다(요 6:63). 나의 모든 생각,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요 3:5~6).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4. 중언이 되신다 성령은 우리의 중언이 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갈 5:25)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친히 증언(롬 8:16)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실로 웅장하기 그지없

THE SECOND TIME

⁽¹⁾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saying,

⁽²⁾“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to it the proclamation which I am going to tell you.”

⁽³⁾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a three days' walk. ⁽⁴⁾Then Jonah began to go through the city one day's walk; and he cried out and said, “Yet forty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Jonah 3:1~4)

During the days of Jonah, Nineveh was considered a great big city with very wicked people. This city was under a forty day destruction countdown from the Lord's judgment. God called Jonah to go to Nineveh and “cry against it”, but Jonah was a reluctant prophet (Jon. 1:1~3). He fled from God's call, and his consequences were not good. “And the LORD appointed a great fish to swallow Jonah, and Jonah was in the stomach of the fish three days and three nights” (Jon. 1:17). Jonah went through a death like experience being buried inside the fish. “I descended to the roots of the mountains. The earth with its bars was around me forever, But You have brought up my life from the pit, O LORD my God” (Jon. 2:6). He also went through a great resurrection experience. “Then the LORD commanded the fish, and it vomited Jonah up onto the dry land” (Jon. 2:10). After these death and life encounter, Jonah received the word of God for the second time.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saying, ‘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to it the proclamation which I am going to tell you.’ 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a three days' walk. Then Jonah began to go through the city one day's walk; and he cried out and said, ‘Yet forty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Jon. 3:1~4).

Jonah's second call came after his failure and God's punishment. Jonah didn't listen to God's first call because he had a very bad attitude. He made a big mistake because he had a big head. His brain was filled with his own reasoning about what was right and what was wrong for the Ninevites. He responded to God's will wrong because he wrongly chose his own will. He thought he knew better than God. Chastening always comes to the wayward child of God. Christians can never get away with sin. The Bible says, “MY SON, DO NOT REGARD LIGHTLY THE DISCIPLINE OF THE LORD, ... FOR THOSE WHOM THE LORD LOVES HE DISCIPLINES, AND HE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 He disciplines us for our good, so that we may share His holiness. All discipline for the moment seems not to be joyful, but sorrowful; yet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afterwards it yields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 (Heb. 12:5~6, 10~11). The great fish that swallowed Jonah was no accident. Israel's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for forty years and Samson's grindings in the prison house were all necessary punishments for God's grace to reach those who had failed.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but Jesus still called him to tend His sheep (Jn. 21:15~17), and told him.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it” (Mt. 16:18). Everyone messes up, makes mistakes, and misses the mark. The good news is that Jesus will meet you wherever you are.

Jonah's second call was the same as his first call. His old commission was restored. “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to it the proclamation which I am going to tell you” (Jon.

3:2). His second call is evidence of God's wonderful grace. This mission was so important for Jonah to obey. When God saved Jonah from the big fish, can you imagine how wonderful he should have felt? After three days of darkness, suffering, praying, crying out to God in repentance, and then suddenly salvation, one can easily imagine that the sunshine would look sensational, the sea breezes would sound fantastic, and the warm sand would feel wonderful. One would think that your praise and thanksgiving to the Lord would be off the charts, but that was not the case with Jonah. After rising up on the beach, God called Jonah a second time with the same message. God gave Jonah a second chance, not for salvation but for service. Jonah obeyed God the second time, but not with a joyful heart. How many times have I asked you to go out from this church and proclaim the gospel? It's a great mission with a great opportunity for happiness, and yet you always hesitate and reason that others, not you, should do this work. Psalms 51:1~17 says, “Be gracious to me, O God, according to Your lovingkindness;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Your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Jonah's second call came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would fail again. Jonah was displeased with Nineveh's repentance. They were enemies of God. So he did not want to see them to be saved. He was disappointed with his successful preaching. He regretted that God used him. Can you imagine an evangelist pouting over a whole city that turns away from sin and toward God? Why was Jonah so unhappy? He convincingly preached God's message of forty days till destruction, and he knew that God loved Nineveh and that if they repented that God would save them. He preached for their destruction, not their salvation. So after the forty days and God didn't destroy Nineveh, he looked bad. He became a liar because what he said wasn't true. Many preachers today have the same problem. Their only interest is in success and fortune, but God still uses them. Even though they may use the wrong sermon with the wrong motives, God still saves. God will still meet you today, even if you are weak and will fail tomorrow.

My dear friends, Jesus asks that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It's not an easy course to follow, and no one can do it by themselves, which is why Jesus gives each of His followers the gift of His Holy Spirit. We've just celebrated Pentecost, so our hearts should be renewed with the need to follow God's will, not our own. Please allow the Holy Spirit to lead you and God will use you for saving souls. Jonah loved God, but his sinful nature got the best of him. He repented, and obeyed God, but his heart was not in the right place. Instead of experiencing righteous joy, he experienced unrighteous anger. His unrighteous anger led him to another chastening lesson. God loves you, and yes, He will chasten you to make you ready for His service and heaven. Amen. 

두 번째 부르심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³⁾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만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⁴⁾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3:1~4)



김성필 목사

요나 시대에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 사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40일 후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를 꺼렸습니다(은 1:1~3).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 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나니”(은 1:17).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빛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이어서 건지셨나이다”(은 2:6). 그는 또한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은 2:10). 죽음과 삶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려졌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만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은 3:1~4).

실패와 징계 후에 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그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자부심이 큰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니느웨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꽂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집 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는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잠 13:24).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5~6, 10~11).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과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보낸 시간은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부르셨습니다(요 21:15~17).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와 동일했습니다. 그의 옛 임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은 3:2). 그 후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증거입니다. 요나에게 이 임무가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서 건지셨을 때 그가 느꼈을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 일 동안의 어둠, 고통, 기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울부짖음 이후에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햇빛이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하게 보이고 바닷바람이 너무나 감미롭게 느껴지며 따스한 해변가 모래가 정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의 경우는 이와 달랐습니다. 해변에서 눈을 뜨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시며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이 아니라 사역에 대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행복을 얻는 놀라운 기회이자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항상 주저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시편 51:1~17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패할지라도 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그가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설교가 성공한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성읍 전체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 때문에 전도자가 입을 삐죽인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왜 요나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 신접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자 요나는 실망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날에도 많은 설교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성공과 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없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하고 내일 실패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결코 따르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강림절을 축하하며,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굳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내어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악한 본성이 그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기쁨을 누리지는 대신 그는 그릇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부당한 분노는 그를 또 다른 징계에 따른 고통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아멘. ■

거듭난 삶

성령과 거듭남 ②

(고린도전서 12:13~27)

믿는 자들을 인지신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인지신다. 이 말은 인침을 받은 신자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이다(롬 8:14~15).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분쟁이 사라지고 사랑이 회복된다(고전 12:25).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3~14). 성령의 인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감사하게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의 세례는 한 몸이 되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

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전 12:13).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행 2:1~3). 그들은 진실로 한 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이 되었다.

성령과 거듭남은 함께 역사한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새 삶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인지시키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한 마음과 한 몸을 가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는 가히 놀라운 은총이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믿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주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은혜로다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가리라

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따르리

내가 사는 것은 다 나의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라

또 내가 사는 것은 다 나의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시니 예수

오! 내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

내 주 앞에 나를 오직 부인하리라

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따르리

오 예수 오 예수님 내 주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주 나의 예수님 오 십자가 따르리라

추천원앙곡집 16장

교역자 간증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고난에서 지루 멀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참된 목사도 아님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통의 길을 의면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피상적이고, 천박한 신앙생활의 이유도 바로 고난을 회피한 것에 있었습니 다. 존경과 명예, 칭찬과 경배에 관심이 있었습니 다. 무엇이든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칭찬과 경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 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임목사님은 이 진리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십자가를 전하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저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외에 주인 삼았던 칭찬, 명예, 권력 등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은 저에게 잘못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봐야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축영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장지원(목사, 고동부)

팀 훈련 중에 받은 은혜

작년에 선교지에서 예수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저는, 올해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선교팀 훈련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팀 훈련 중 구성원의 잦은 변동과 정도한 성도들의 저조한 예배 참석율과 정도언어의 미숙으로 2차, 3차, 4차까지 모두 재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팀 훈련의 깊은 의미를 깨달도록, 저희들을 그 날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꼭 선교를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중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사가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생명이 넘쳐 감사함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느끼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참된 선교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닥친 힘든 기도 드리던 중, "네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많은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 너의 쓰라린 심정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속삭여 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4차 재심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선교 출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힘들었던 훈련과정을 회상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선교일정이 갑작스럽게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선교를 허락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팀원들과 함께 훈련기도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조금이나마 채워가기를 원하면서...

박경혜(잠사, 13교구)

의료선교의 날



지난 주일(16일), 선교위원회 산하 국내외국인선교부와 의료선교부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의료선교의 날' 행사는 제2교육관 로비에서 진료접수가, 분당 알마당에 마련된 의료차량에서 X-ray와 피검사, 분당 지하 아멘홀에서는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안과, 소아과, 한방과 등 진료가 이루어졌다. 이날 참여한 의료선교부 소속 봉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모두 20여명으로 오전 10시부터 5시간 가량 외선부 성도를 비롯해 외국인거

주자 170여명을 진료했으며 건강상담과 처방 및 무료로 약을 제공했다. 안세현 의료선교부장은 "의료선교의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의료로 성도들에게 베풀고, 이를 통해 주변 외국인들을 전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을 위해 복음의 인술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료와 약 처방 등이 참 인상적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같은 나라 국민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김마리아(러시아, 27세)



"5년전부터 무료진료를 받고 있다. 매해 나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주고, 자세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무척 감사하다."

프러타임(갈보니아, 28세)



"5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 입을 다쳤는데, 치료를 못받았다. 2년전 의료선교의 날에 와서 진료를 받고, 병원과도 연계돼서 특수술을 받았다. 총연교회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듯하다"

동포김(인도네시아, 35세)

지금 준비하세요! 선교(4)

3차(언어와 행정평가)& 4차 심사(최종점검)

3차 심사는 선교지 언어와 팀의 선교 역량에 대한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3차 심사를 통과하고 공동체훈련(2차 양성훈련)까지 마지면 4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발 2주전에 이루어지는 4차 심사는 지금까지 훈련과 앞으로의 선교를 위한 마무리와 마지막 점검입니다. 팀원들의 성장과 영혼 사역하는 마음(진도), 언어 구사능력, 영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4차 심사가 끝나면 이제 파송식과 출발예배를 거쳐 선교헌지로 출국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기도 후원자와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영적 전장의 최전선을 향하는 마지막 준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위원회)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5일(화) ~ 6월 3일(목)	13교구 1팀	김대웅
5월 25일(화) ~ 6월 3일(목)	18교구 3팀	공석성
5월 26일(수) ~ 6월 3일(목)	5교구 2팀	김옥권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7일(월) ~ 5월 28일(수)	직원 1팀	김병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2일(수) ~ 5월 20일(목)	21교구 1팀	이영식

회 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라" (시 23:3). 24살 때에 저는 믿음을 있었지만 교회활동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성경말씀보다는 저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니다. 주일예배는 안 가면 안 되는 무언의 의무감으로 변하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원하는 소망을 위한 마음 속 부적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점점 멀어졌고, 믿음과 저와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 풀음의 때에 주님의 율타리를 벗어나 세상이 주는 죄와 유혹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니다. 제 영혼은 가난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니다.

주님께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풍랑 속의 배와 같은 저를 친구를 통해 청년1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청년1부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시 키워 갈 수가 있었습니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서툴지만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조금씩 제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니다. 그러던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은혜의 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청년1부 여름수련회에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수많은 죄들로 예수님을 떠난 저를 다시 받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처음과 같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영원한 회복'임을,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렐 33:6).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보여 주십니다. 맑은 날 쏟아지는 햇살 가운데에도 있고, 반짝이는 잔잔한 호수 위에도 있으시며, 까마득히 어두운 밤 하늘 오직 하느님의 빛에서도 있음을 믿습니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거듭나고 매일 매일 주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믿고 간구습니니다.

정희원(청년1부)

열정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충현에 온 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친구의 소개로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기존에 다니던 교회와 다른 큰 규모에 더욱 놀랐습니니다. 이러한 놀라움과 기대감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깐, 너무나 많은 은혜와 교제 속에서 충현의 세심함과 따뜻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니다.

'직접 발로 찾아 삼가는 충현'에 감사합니다. 최근에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롭고 7교구를 섬기게 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었습니니다. 열 마음을 한 번 보고 싶다고 하시며, 제가 몸 담고 있는 직장에 친히 심방을 오셨습니다. 마음이 각박해져 있던 저에게 점심 시간에 직장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도 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맑은 양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니다.

'중보기도하는 충현'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어 가족 모두 걱정과 근심에 싸여 있었습니니다. 그 어느 때보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무릎이 절실하였습니니다. 바로 그때 교구 권사님과 구역장, 목사님, 그리고 교구 식구들의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병원 검사결과를 묻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정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충현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공동체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갈 5:14)라는 말씀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충현, 그리고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나현(성도, 7교구)

예수님의 생애

조종2부 새생명조성전에서 젊은 교사 4명이 '예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준비하여 공연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성극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양백한 공연은 아니었지만, 양백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시간이었다. 안 영훈을 위한 산성님들의 사랑의 수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1장-예수님의 태어남



2장-산성님들의 사랑



3장-영지시자의 죽음의 신비로움



4장-대제사장의 모함과 빌라도의 재판



5장-산성님들의 사랑



6장-영지시자의 죽음의 신비로움

학교로 스며든 십자가 향기, 고등부 '둘로스'



지난 4월 25일, 고등부에 있는 둘로스에서 발대식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토요일에는 둘로스 일일 수련회가 있었다. 둘로스는 충원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각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작은 복음 공동체이다. 각 학교마다 리더인 천부장을 한명씩 두어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Q1. 둘로스의 뜻은 무엇인가요?

둘로스는 그리스어로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 천진다사

Q2. 둘로스 발대식이 있었다는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발대식이란 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각 학교별로 천부장(학교대표)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대식을 하는 목적은 학교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각 천부장들에게 심어 주고, 그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박정호 교사

Q3. 둘로스를 하면서 받은 은혜?

- 모르는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정호(a33)
-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해 주셔서 좋아요. 박주홍(a27)
-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양해원(a11)

고등부는 고등학생들의 복음공동체(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4층)이다. 많은 학생이 일시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매일 경건생활을 위한 행동은 커녕 주일에베조차 나오기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복음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게 대견스러울뿐이다. 과연 충원교회 고등부다!

취재·김성태 기자

충원기도원의 별장, 소망관

지난 5월 7일 밤, <주간충원> 기자들이 영성훈련을 위해 충원기도원에 삼삼오오 모였다. 그런데 이들은 분당, 에스더관, 다니엘관, 엘리관, 루디아관이 아닌 특별한 별장으로 왔다. 충원기도원에 별장이라니? 그렇다. 충원기도원에 별장식 집회장소가 생겼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사랑관(다목적 수양 시설) 옆에 위치한 소망관은 2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소규모 집회와 숙박이 가능하다. 이날 <주간충원> 기자들은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이곳을 떠나면서 기자들은 한 마디씩 던졌다. "다음에도 꼭 와요!" 각 부서의 기도회와 영성훈련 장소로 소망관을 추천한다. 물론 다른 교회에게도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원기도원 사무실(031-766-5425)로 문의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망관 전경



1층 집회실



2층 거담



2층 거담



2층 숙소



화장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15	김지선	18	청년2부 이미애(5)	538	심은경	4	청년1부 조옥원(5)
516	김정희	6	청년2부 김은경(5)	539	신희경	2	초등2부 이정민(20)
517	김정아	18	청년1부 이희우(14)	540	신 화	3	소망부 김 숙(18)
518	정선권	16	중등부 임영애(16)	541	오세철	10	청년1부
519	신종선	7	청년2부 장득경(14)	542	한백희	11	청년1부
520	권상선	15	청년2부 김진현(18)	543	윤정현	3	청년2부 윤순규(3)
521	김기홍	18	청년1부 한정현(14)	544	전재만	2	청년2부 임경순(22)
522	김태기	13	청년2부 신소라(13)	545	오해복	22	청년1부 장진규(8)
523	남순정	14	청년2부 한광우(23)	546	조유정	10	청년2부 성대진(17)
524	이근섭	7	청년2부 이봉선(4)	547	심봉문	22	청년2부 김성수(22)
525	정미영	9	청년1부 오은경(11)	548	홍유정	22	청년1부 김재호(22)
526	이현태	18	대학부 이상배(13)	549	김은혜	10	초등1부 김하나(25)
527	문애선	9	청년2부 박경순(8)	550	유미숙	25	에비디부 박정현(25)
528	변영옥	7	청년2부 정성원(4)	551	유미숙	5	청년1부 임경순(22)
529	권영은	22	청년1부 이말영(22)	552	최승수	12	대학부 김영모(4)
530	문순준	6	청년1부 김수진(20)	553	이지연	13	청년1부 조정수(20)
531	이용호	20	청년1부 한준호(20)	554	이민정	20	청년2부 김형이(18)
532	이민정	12	청년2부 김경이(18)	555	안영자	21	청년2부 정순옥(21)
533	전우진	7	중등부 위희원(7)	556	양유주	23	청년1부 문영광(21)
534	최지훈	11	청년1부 송하성(13)	557	신희지	2	초등1부 김병희(20)
535	신태순	13	청년3부 한순지(13)	558	박수현	19	대학부 이신애(20)
536	이해숙	13	청년3부 한순지(13)	559	정하은	1	청년1부
537	송윤정	18	청년2부 이지형(20)				

* 충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0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Tip. 오순절(2)

오순절의 유래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칠월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했다. 또한 신명기 16장 9-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무교절 때에 초실절 즉 저을 익은 이삭을 거두어 하 나님께 오제(제물)를 끈끈이 드리는 제사(방배)로 드린 후에 7주를 계수하게 되었다. 즉 1주 간에 7일이므로 거기에 다시 7주간을 곱하여 49일이 된다. 그 49일이 지난 다음날이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주신 약속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그 예물은 맥추감사 예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나 50일 만에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10일이 된다).

오순절은 초실절 즉 맥추절의 신약적인 명칭이다.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개명되기까지는 1500년의 역사가 흘러갔으나 그 기간 중 B.C. 400년까지는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약의 오순절이 구약의 맥추절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오순절이 명칭인 면에서 성취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이다. 즉 초대 교회의 성령강림으로 완성되었다. 그 성령 강림으로 초대 성도들이 변화되고 능력받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교회를 세운 결과 이것이 후에 교회에 유영하여졌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강림절이다.

교회소식

모형

1. 남·녀 전도회장 전제윌례회
일시: 23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2. 교육개발 소위원회 전제회의
일시: 30일(다음 주일) 13:00
장소: 캄빈홀
-
- 별 제**
1. 이선숙 은비집사(김성실 성도의 모친·김 찬옥 집사의 장모, 15교구 반포3구역) / 18
일 밤에 30일 3시에

결론

1. 김경모 군(金興朱 씨 - 永興宗 씨의 아들, 6교구)과 최현정 양씨(최인원 태교장모 - 정순숙 태교장친의 딸, 19교구) / 29일(토) 13:00, 가문과이브페스티벌전선 10층 티파니홀
2. 권오용 군(權丙星 집사 - 황은선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조미옥 양(조미희 성도 - 유숙자 성도 딸, 타교) / 29일(토) 13:00, 신산자유센터 대평홀
3. 안민 군(安民)과 최은도의 아들, 13교구)과 김영은 양(김영찬 태교장친 - 이영애 태교장친의 딸, 13교구) / 29일(토) 18:30, 덕화교회 2층 대평홀

2010년 제8차 CMTC (서강원)

2010년 제8차 CMTC (연료분반)
일시 : 6월 6일(주일) 장소 : 갈멜리움

시 간	강 의
18:15~18:25	오리엔테이션
18:25~19:15	주제강의(기도하며 나가는 선교)
19:15~19:40	2010년도 선교정책

CMTC 선교수련회(*팀 단위로 참석요망)

일시 : 6월 19일(토) 9:00~13:00
장소 : 제1교육관 307호

충현 음악 아카데미

문의/정연희 집사 552-8200(내선 259) /010-9004-9140

과목	일시	강사
플랫	초급(토 14:00) 중급(토 15:00) 고급(토 16:00)	김유경
오보에	토(13:00) 토(17:30)	김명진
클라리넷	토(13:00) 토(17:30)	이형민
혼	토(13:00) 토(17:30)	조은정
트럼펫	초급(토 17:00) 중급(토 18:00) 고급(토 19:00)	노인아
트럼본	토(13:00~16:00)	이영규
튜바	토(13:00) 토(17:30)	김도현
바이올린	매일 오전(8:30~11:00) 오후(2:30~5:00)	정현희 이희수 안유아 김소현
비올라	토	김계진
첼로	화·목	이태영
유아반(바이올린/비올라) 오전(8:30~11:00) 오후(2:30~5:00)	과·목 (토, 화, 목요일)	이희수

- *장소: 본당 5층 연습실 외
- *모든 수업은 주 1회 50분 수업(유아반 제외)
- *사정에 따라 강의시간 변경 가능
- *수강을 원하는 의기는 각자 준비(문헌 제외)

5월 충현 기도의 창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 ③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절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④ 교회에 등록된 사제들이 길과 진리의 생령(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⑤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령으로 사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⑥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간행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요 15:2)된 예배실 착각하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⑦ 25개 교회를 20개 교회화(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국교회 125개)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표(1:1) 전도하며 교구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 133개 전진전력하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시에 입당(복음을 전하는 열매 단기선교(단 16:5)로 자기를 부리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의 재단주요·동산·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알로인, 남급식, 할양합동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⑪ 파독자들을 모두 훈련한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신자(신자)를 전하는 신자(신자)의 열매(열매 2:2)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새벽기도회 (5/24~5/30)

	24 (월)	25 (화)	26 (수)	27 (목)	28 (금)	29 (토)	30 (주일)
설교자/기도자	양태선/이상해	유현철/변광대	탁정현/한현석	최성득/안세현	이광현/김상열	강호성/이복순B	이순식/황순관
설교분류	문 1:1-16	문 1:17-25	히 1:1-14	히 2:1-10	히 2:11-18	히 3:1-11	히 3:12-19

예배 담당 (5/26~5/30)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5/26	주일 I 주일 II	하늘에 간직하신 것(벧전 1:3-5) 강영익 목사 가나안으로 가는 길(수 3:1-6) 박건익 목사	이순식 장성현	박민욱 여기순	주님의 말씀 받은 것(호산나 찬양대) 천사를 향하여 가는 성(보리밭이 실심일 찬양대)
5/28	금요집회	양재용목사	양태식	예수말씀 찬양대 / 조용 불꽃주요 / 바리본 박성수	
5/30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주일 IV 주일 V 주일 VI	두 번째 부름(은 3:1-4) 양태식 목사 두 번째 부름(은 3:1-4) 안치익 목사 두 번째 부름(은 3:1-4) 이희원 목사 두 번째 부름(은 3:1-4) 김백한 목사 두 번째 부름(은 3:1-4) 김연창 목사 두 번째 부름(은 3:1-4) 김연창 목사	하형욱 이재원 강영중 박준식 김준민 강성진	배운식 전계식 임창식 박준식 김준민 김성진	「예배 전야」 내 죄를 회개하고 외 / 죄의사로 조제인(안나) 찬양대 주님게 영광의 / 어떤 오케스트라 내 다독히신 예수께 / 어떤 어성장중(도. 김현철)
5/31	주일 VII	마태의 예수(마 10:1-9) 김연창 목사	김성진	임원식	송현희를 중당당 / 권사희 / 17교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 분		시 간	장 소
주요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성동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성동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침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양심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자정 10:30	금요일양회로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중국어, 오모 시아지 드리는 주일 2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및 오모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i Lankien,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섬 · 기 · 는 · 부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